

잡지 《샘이깊은물》의 여성주의적 함의 표지 사진을 중심으로

The Feminist Implications of *Saemikipunmul* Magazine: Focusing on Cover Photography

전가경(사월의눈)

Kay Jun (Aprilsnow Press)

1. 기억 속 어떤 초상
2. '가정지' 《샘이깊은물》
 - 2.1. '가정지' 《샘이깊은물》의 창간 배경
 - 2.2. 잡지의 편집 방향
 - 2.3. 잡지의 디자인
3.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
 - 3.1. 조형적 특징
 - 3.2. 표지 설명
4. '1980년대 여성'에 관한 세 가지 텍스트
 - 4.1. 여성 관련 기사
 - 4.2. 여성 독서 문화
 - 4.3. 여성 운동
5. 《샘이깊은물》 표지 사진의 여성주의적 함의

요약

잡지 《샘이깊은물》은 1984년 11월에 창간된 한국의 대표적 교양지 중 하나였다. 발행인은 한창기였으며, 그와 함께 김형윤, 설호정이 편집진으로, 한국 1세대 아트디렉터 이상철과 사진가 강운구가 각각 미술(디자인)과 사진을 책임지는 창간 멤버로 투입되었다. 《샘이깊은물》은 ‘가정’과 ‘여성’을 중심축에 놓고,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현상을 심도 있게 다뤘다. 형식에서도 빼어났던 잡지는 1980년대 한국의 대표 디자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특히, 표지는 1980년대 일반 여성을 등장시킴으로써 종종 주체적 여성상에 대한 표상으로 이해되곤 했다.

연구자는 잡지 디자인에 대한 분석을 너머 잡지에 수록된 여러 다양한 기사를 보며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수백 건에 달하는 여성 관련 비판적 기사와 표지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표지 설명이었다. 후자의 경우, 198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20-30대 여성의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었다. 본 논문은 일반 여성이 등장하는 표지 사진의 여성주의적 함의를 표지 설명과의 연동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지 사진을 해석하기 위해선 1980년대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를 관통해야만 했다. 잡지에 수록된 여성 관련 기사, 1980년대 여성 독서 문화와 여성 운동을 고찰했다. 그 결과, 《샘이깊은물》의 표지는 두 가지 평가가 가능했다. ‘주체적 여성상’과 함께 ‘결혼-주부-육아’ 등으로 수렴되는 또 다른 가부장적 시선이라는 평가다. 후자는 기존 ‘주체적 여성상’이라는 평가에 대한 신선한

포지션이다. 그러나 1980년대 여성의 지위와 여성운동을 고려할 때 표지 사진은 마냥 매끄럽고 깔끔하게 정리되기에 매우 복잡한 기호였다. 오히려 결론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은 ‘당시 성차에 문제의식을 가진 한 잡지가 표지를 통해 구가할 수 있었던 최선의 시각화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이다.

핵심어

《샘이깊은물》, 여성잡지, 잡지디자인, 잡지표지, 표지 사진, 1980년대

Abstract

Founded in November 1984, *Saemikipunmul* magazine was one of Korea's leading cultural magazines. The publisher was renowned Han Changki, and its staff, editors Kim Hyungyoon and Seol Hojung, art director Lee Sangcheol and photographer Kang Woonku, were some of the founding members. As the main topics were women and the home, the magazine covered mostly issues related to women's problems and status in Korean society in the 1980s. The magazine is also highly celebrated for its modernist-oriented editorial design. Thus, it is often mentioned as one of the leading Korean graphic design publications of the 1980s. Its cover is especially acclaimed for its

representation of women as independent figures.

Beyond the analysis of magazine design, I found several interesting points by reading various articles in the magazine. One of them was hundreds of critical articles about the status of women. The other thing that intrigued me was each cover caption that accompanied the cover photography. In each cover caption, stories of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living in the 1980s were delivered concisely and poignantly. This paper examines the feminist implications of the magazine's cover photography through the link between cover photography and their captions.

In order to interpret the cover photography, it was necessary to look deeper into various texts on the status of women in the 1980s. Along with articles related to women in *Saemikipunmul*, women's reading culture and the women's movement in Korea throughout the 1980s were reviewed. As a result, there were two common evaluations of the cover photography of *Saemikipunmul*. One viewpoint, which is already widely shared, is its representation of women as independent figures. The other possible evaluation was that the cover photography was another reproduction of a patriarchal opinion that subjugated a woman's status to a "marriage—housewife—childcare" system. Although the latter might sound fresh against the

existing evaluation of the "independent female image," the cover photo was a very complicated sign that did not bend to a single interpretation. Rather, the paper had to bring up another question as a conclusion. Considering the women's movement and the reading culture of women in the 1980s, one might question whether the cover photography of *Saemikipunmul*, despite its limitations in cultural terms, might have been its highest level of visualization that could have been achieved at the time.

Key Words

Saemikipunmul, Women's Magazine, Magazine Design, Magazine Cover, The 1980s

1. 기억 속 어떤 초상

1980년대의 어느 한 해, 국제공항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김포공항 내 어느 서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십 대 초반이었던 나는 내 시선에선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잡지 하나를 발견했다. 《샘이깊은물》이었다. 십 대 여학생들을 공략하는 《하이틴》을 제쳐두고 매혹적인 표지에 이끌려 이후 몇 차례 《샘이깊은물》을 구매했다. 표지 속 여성이라는 콘셉트는 익숙했지만,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흑백 조의 여성 초상 사진은 낯설었다. 그러나 낯선 신선한 매력의 다른 이름이었던 만큼

구매로 이어졌다. 문화라는 것을 여전히 잘 몰랐던 나이에 암묵적으로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종이 잡지 《샘이깊은물》이었다. 돌이켜 보건대 그것이 나와 《샘이깊은물》과의 우연한 첫 만남이었다.

이 글은 1984년 11월 창간된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을 대상으로, 이 안에서 읽을 수 있는 여성주의적 함의를 고찰한다.¹⁾ 《샘이깊은물》은 《뿌리깊은나무》의 발행인 한창기가 창간한 또 하나의 잡지로서 《뿌리깊은나무》의 잡지 정신과 편집 방향을 계승함과 동시에 ‘여성’이라는 인물과 관련 주제를 중심축에 놓았다. 통시적으로는 《뿌리깊은나무》, 공시적으로는 1980년대 여성지와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계승의 측면에서 《샘이깊은물》은 《뿌리깊은나무》만큼이나 강렬한 시각적 정체성을 표지를 통해 발산했다. 유명 여성 연예인이 아닌, 일반 여성이 등장했고, 표지 상단에는 한국 1세대 아트디렉터 이상철이 디자인한 탈네모폴의 ‘샘이깊은물’ 제호를 배치했다. 당시로서는 파격이라고 이름 부를만한 표지 디자인은 잡지가 추구하는 주제적 여성에

대한 독자적 해석으로 흔히 풀이된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 여성이 잡지 표지에 등장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자 잡지의 문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통의 배경에는 대중의 욕망과 잡지의 노선이 교차하는 장소로서의 잡지 표지가 자리해 있다. 잡지는 대중이 원하는 표상을 표지를 통해 구현해 내는가 하면, 대중은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표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투영한다. 일반 대중지가 아닌 뚜렷한 타겟층이 있는 전문지 및 시사지 등의 경우, 표지를 통해 잡지의 지향점을 선명하게 관철시키기는 계몽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표지에서 초상 사진은 가장 쉽고 동시에 복잡한 시각 언어다. 유명 연예인의 표지 등장은 잡지의 셀링포인트가 되지만, 일반인 기용은 모험이자 도전이다. 《샘이깊은물》은 후자에 속한다. 기존 표지 언어를 답습하지 않았던 《샘이깊은물》은 표지 설명이라는 잡지의 내부적 조건과 1980년대 한국 여성의 자리라는 외부적 조건이 맞물리면서 여러 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모호한 기호다. 이 글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기호로서의 《샘이깊은물》 표지 사진에 주목하며,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여성주의적 함의를 읽어내고자 한다.

그간 《샘이깊은물》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교양지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잡지가 지닌 문화사적 위상에 비해 이에 대한 학문적 분석이나 검토는 빈약했다. 최재균이 쓴 『월간잡지 《샘이깊은물》에서의 사진 활용에 대한 연구: 표지 사진, 사진 화보를 중심으로』(2013)은 이 잡지에 대한 유일한 학위논문이라는 점에선 그 가치가 돋보이지만

1 이 글은 2019년 10월에 열린 ‘서울사진축제: 오픈 유어 스토리’ 연계 강연 내용과 2020년 2월 1일, 시각문화학회(Society of Visual Culture)에서 발표했던 미완성 원고에서 출발한다. 두 차례 걸쳐 발표한 강연 내용은 표지 사진, 표지 설명, 광고 사진 그리고 잡지 기사라는 잡지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잡지의 여성주의적 함의를 읽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을 표지 사진과 표지 설명으로 제한했다. 도판으로 삽입된 잡지 표지는 《샘이깊은물》 디자이너였던 김선경과 박영신으로부터 제공 받았으며(1985년 9월호는 김선문 제공), 사진가 박기덕이 촬영했다.

심층 분석이 전개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단행본 『특집, 한창기!』(2008)는 잡지 및 발행인 한창기에 관한 다양한 에세이와 대담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잡지에 몸담았던 관계자들이 참여한 글과 좌담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잡지의 단면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전달했다는 점에서 문헌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러나 발행인 한창기에 대한 헌정 프로젝트로 제작된 단행본인 만큼 책은 ‘헌사’의 성격이 강하다. 그간 잡지를 둘러싼 평가는 객관적 분석보다는 주관적 인상이나 경험담 및 추상적 감각에 기초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결과 호평이 지배적이었다. 이 글은 이러한 세간의 평가와 실제 관찰하고 읽어 나가며 느꼈던 《샘이깊은물》 간의 간극을 발견한 데서 출발한다. 그 간극에 대한 의문을 품거나 읽어 나가는 하나의 사례로 잡지의 표지 사진을 지목한 것이다.

잡지는 2001년도까지 발행되었으나 이 글의 분석 대상은 1980년대 발행된 《샘이깊은물》(1984년 11월호-1989년 12월호)에 국한한다. 대상을 좁힌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잡지의 주요 편집 요소인 표지 설명이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분량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표지 설명은 표지 사진의 여성주의적 의미를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러나 1990년 1월호부터 편집상의 이유로 분량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라졌다. 그 결과, 이 논문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사진(표지 사진)과 텍스트(표지 설명)의 관계 분석은 1980년대 이후 발행된 잡지에는 적용이 불가능했다. 둘째,

1980년대는 한국 여성 운동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여성 관련 주제와 문제의식이 핵심이었던 《샘이깊은물》을 당대 여성 운동과 병렬시키는 것은 중요하고 동시에 유효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1980년대 한국 여성의 다양한 상을 입체적으로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2. ‘가정지’ 《샘이깊은물》

2.1. ‘가정지’ 《샘이깊은물》의 창간 배경

여자에게 허영과 섹스어필을 부추기는 잡지가 아니라 여자를 주체적 인간으로 상정한 잡지를 내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았던 것이다. 정말 부질없는 잡지들이 여자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판치고 있었으니까.²⁾



[그림 1] ‘가정지’로 등록된 《샘이깊은물》 창간호 (한창기, 1984.11)(좌)와 《가정조선》 창간호 (조선일보사, 1985.1)

2 설호정, 「가정 잡지 또는 여성 잡지? 아니...」, 『특집, 한창기!』, (창비, 2008), p.83

1985년 4월호부터 1997년 6월호까지 《샘이깊은물》의 편집주간을 맡았던 설호정은 잡지의 창간 배경에 대해 위와 같이 회고했다. 1976년 3월 창간된 《뿌리깊은나무》를 이미 발행하고 있던 시점에 발행인 한창기와 내부 직원들은 여성지의 가능성을 접쳐 보고 있었다.³⁾ 그러나 1979년 박정희가 암살되고,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작과 함께 《뿌리깊은나무》가 1980년 7월 강제 폐간되면서 여성지 발행 계획은 물 건너가는 듯했다.

여성지 발행의 가능성은 전두환 정권의 유희 정책과 함께 다시 찾아왔다. 애초 계획대로 여성지를 만들려고 했으나, '신화적인' 《뿌리깊은나무》의 발행처에서 또 하나의 여성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당시 여성지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동종업계의 반발만 샀다. 결국 하나의 우회로서 《샘이깊은물》은 '가정지'로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었다. 지금은 《여성조선》인 《가정조선》⁴⁾이 《샘이깊은물》과

함께 '가정지'로 등록되면서 이듬해 1985년 1월에 창간되었다. [그림 1] 1980년대는 웬만한 유력 일간지들은 모두 여성지를 갖고 있을 만큼 여성지가 대세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샘이깊은물》은 절차상 가정지이나 내면은 여성지를 꿈꿨던 잡지로서 1984년 11월, 첫선을 보인다. 이 지점에서 《샘이깊은물》이 당시 여성지 시장 안에서 차지했던 통시적, 공시적 좌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1985년 발행된 연구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 stereotype 분석」⁵⁾을 참조 삼아 당시 정황을 파악해 본다.

논문이 1984년 12월을 기준으로 발행된 잡지 중 '여성지'라는 장르로 파악하고 열거한 매체들은 다음과 같다. 《레이디경향》, 《여성동아》, 《여성자신》, 《여성중앙》, 《여원》, 《영레이디》 그리고 《주부생활》이다. 이 과정에서 논문은 잡지 《멋》은 “패션을 목적으로 발간”되고, 《가정백과》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록해 놓은” 잡지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 '여성지'에서 제외시켰다.⁶⁾ 《샘이깊은물》의 창간일을 감안한다면 잡지가 차별화의 대상으로 고려했던 여성지들은 앞서 열거된 잡지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

3 “그렇게 잘 나가던 1979년 여름쯤부터 뿌리깊은나무 편집실에서는 여성지 발행을 위한 환경조사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유형의 여성지가 시장에서 가망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요컨대, 《뿌리깊은나무》 발행 - 편집인 한창기는 《뿌리깊은나무》의 성공에 고무받아 매체를 다양화해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설호정, 「가정 잡지 또는 여성 잡지? 아니...」, p.83

4 이 잡지의 아트디렉터로 있었던 조의환 디자이너는 잡지의 창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정조선》은 1985년 1월에 창간되었다. 조선일보사가 창간한 이 잡지는 '여성지'라는 기성 잡지와는 내용적인 구성을 달리하는 '가정종합지'라는 틀에 담겼다. 독자층을 중산층의 주부들로 보고 이른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얼굴 뜨겁지 않은 잡지를 주장해 왔다. 물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그게 뭐 다르냐고 할 수도 있겠다.”: 조의환, 「특집: 매거진 디자인」, 《월간 디자인》 6월호, (디자인하우스, 1988), p.99

5 김석향, 김은하,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 stereotype 분석」, 『연구논집』 Vol.13, (이화여자대학교, 1985), pp.195-223

6 두 잡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논문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후자의 두 여성잡지는 각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창간되었으므로, 전반적인 사회화의 대행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제외하기로 하였다.”: 김석향, 김은하,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 stereotype 분석」, p.199

가지 특이점은, 이 여성지들이 결혼 여부에 따라 미혼여성, 주부와 미혼여성 그리고 주부 대상으로 세분화되었다는 점이다.⁷⁾ 그렇다면 당시 여성지의 편집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가. 정량적, 질적 연구 방법론을 동원해 이 논문이 말미에 내놓은 분석이 흥미로운 단서다.

먼저 논문은 다수 여성지들이 ‘여성 상위’라는 시대의 새로운 흐름에 부합하여 진보적 여성상을 제시하는 기사들을 수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최근 들어 여성잡지마다 앞다투어 ‘여성 상위’라는 개념을 비롯하여 ‘여자도 유능한 존재’라든지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인간’이라는 표제를 내건 기사를 수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 이후 서서히 불붙기 시작한 여권운동의 결과로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마침내 대중매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제목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도 실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리어 기존의 여성상을 보다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를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⁸⁾

위 인용문에 근거하자면, 《샘이깊은물》이 추구한 가정 및 사회 내 여성의 새로운 지위는 비단 《샘이깊은물》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문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가공하여 기사화했는가이다. 200편 넘는 ‘여성’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연구한 논문은 “여성잡지의 내용은 여성에 대한 Stereotype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정형화된 Stereotype을 타파하고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내세운 기사도 성에 따른 Stereotype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의 역할을 유발한다”고 결론을 지었다.⁹⁾ 정리하건대, 당시 여성지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많은 여성지는 표면적으로는 여성 인권을 촉구하는 기사들을 생산했을지언정, 궁극엔 오히려 여성의 성차를 고착화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에 직면한 여성지의 여성 ‘담론’ 생산과 유통 상황에서 《샘이깊은물》의 ‘차별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잡지의 편집 방향

한창기가 쓴 창간사에서는 ‘여성’을 중심에 놓은 잡지의 편집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7 가령, 《레이디경향》, 《여성자신》, 《영레이디》는 미혼여성들, 《여성동아》는 주부와 미혼여성들, 《여성동아》, 《여원》, 《주부생활》은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연구는 밝혔다. 반면, 《샘이깊은물》은 독자층을 미혼과 기혼 및 연령대로 분류하지 않았다. 잡지가 동시대 여성지와 구분되었던 지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김석향, 김은하,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 stereotype 분석」, p.199

8 김석향, 김은하,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 stereotype 분석」, p.211

9 김석향, 김은하,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 stereotype 분석」, p.211

가정이 《샘이깊은물》이 탐색하는 주요 대상에 들고, 실제로 여자들이 많은 가정의 핵심이 되므로, 자연히 이 문화잡지는 남자들이 더 많이 읽던 《뿌리깊은나무와는 달리 여자들이 더 많이 읽게 될 터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정이 반드시 부모와 부부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전통가정인 것은 아닐 바에야 많은 여자가 함께 살거나 얹혀살거나, 현대 가정의 핵심으로서 또는 그런 핵심이 언젠가는 될 사람으로서 이 잡지의 내용에 유별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뿌리깊은나무》가 ‘사람’의 잡지였지 ‘남성’의 잡지가 아니었듯이, 이 문화잡지도 이른바 ‘여성지’가 아니라 ‘사람의 잡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 남자들도 탐독할 잡지입니다.¹⁰⁾

한창기는 창간사에서 더욱 광의의 개념인 ‘사람의 잡지’로서 잡지의 방향성을 부각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의 동참과 계몽을 통해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함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으로 유화시키는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 여성을 소재로 한 표지에서부터 매 호마다 실렸던 여성주의적 기사들을 염두에 둘 때 한창기의 “사람의 잡지”는 젠더를 뛰어넘는 평등 사회 지향에 대한 열쇳말로 읽을 수 있다.

기존 여성지와 차별점은 비단 ‘여성’ 관련 소재를 다루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여성이 시사(時事)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해 왔던 시사를 잡지의 주요 테마로 포함했다. 이와 같은 편집 방향은 설호정이 인터뷰이로 참여한 신문 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 잡지는 여성을 돈 쓰고 모양내고 남자한테 사랑받으려 애쓰는 존재로는 절대로 보지 않는다. 알아야 할 세상살이 제대로 알려주고 주체적인 삶이 되도록 조언하는 제작을 해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¹¹⁾ [그림 2] 이와 같은 잡지의 강력한 성격을 강준만은 “기품있는 비판 정신”이라고 평하기도 했다.¹²⁾

고정 칼럼들 또한 잡지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였다. 「이런 음식 한 가지」, 「잘 입은 한복」, 「불 만한 집치레」, 「요즈음의 세상 형편」, 「이 사람이 사는 방법」, 「평생토록 못 잊을 일」, 「책을 보니」 등의 대중문화 비평, 좌담 「말」 등은 과하지 않는 소비, 좋은 물건을 보고 좋은 문화를 식별할 줄 아는 눈, 평등하게 사는 법, 잊혀지는 전통에 새로운 가치 부여하기 등 산업화로 치닫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 시민이자 교양인으로서의 자세와 삶의 가치를 안내했다. 잡지의 사진 편집위원이었던 사진가 강운구가 기고해 나간 화보 「이 마을 이 식구」도 《샘이깊은물》의 주요 연재 중 하나였다. 그는

10 한창기, 「창간사: 사람의 잡지」, 《샘이깊은물》 11월호, (1984), p.201

11 윤옥섭, 「여성지 이래도 되나」, 《매일경제》, (1990.9.9)

12 강준만, 「샘이깊은물: 당돌하고 발칙한 잡지」, 『특집, 한창기』, (창비, 2008), p.30

완고하고도 정직한 시선으로 당시 한국의 농촌과 도시를 ‘사진에세이’라는 형식으로 기록했고,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¹³⁾



[그림 2] “그러나 “여성지”가 아닙니다.”라는 광고 카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고에서도 일반 여성지와 차별화를 꾀했다. 그림은 《동아일보》에 인쇄된 《삼이깊은물》 광고 (1984.11.6)

이외에도 당시 진보적 여론을 주도해 나갔던 지성인들의 글이 지면을 채웠는데, 이 중에서도 여성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창간호 「편집자에게」 코너에서는 소설가 박완서와 화가 천경자가 《삼이깊은물》이 여성을 위한 잡지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서울신문 논설위원인 송정숙은 연재 칼럼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 지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꾸준히 전개해 나갔다. 여성 운동에 가담한 필진도 1985년 이후 자주 등장했다. 잡지 《여성》의 편집위원인 김경진, 한국 최초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또 하나의 문화’ 창작집단, 여성학자 오숙희 등이 그중 대표적 인물이다.

13 설호정, 「가정 잡지 또는 여성 잡지? 아니...」, p.90

잡지는 2001년도에 ‘휴간’되었으나, 창간 정신을 유지하고 계승한 《삼이깊은물》은 1997년 2월 한창기의 타계 및 1997년 6월 편집주간 설호정의 사직과 함께 1997년 6월호로 종료했다.¹⁴⁾ 《삼이깊은물》의 주요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발행인	한창기(필명: 한영보)
편집장	김형운(창간호-1985년 3월호) 설호정(1985년 4월호-1997년 6월호까지)
창간멤버	김형운(편집장), 설호정, 박해석(편집 차장), (편집/미술 이상철(미술 편집위원), 이영미, 이용주, 박영신(미술), 사진 중심) 강운구(사진 편집위원), 백승기, 이정진(사진)
판형	창간 후 10년간 사육배판, 이후 변형 국배판

[표 1] 《삼이깊은물》의 주요 정보

2.3. 잡지의 디자인

《삼이깊은물》은 《뿌리깊은나무》를 잇는 만큼 조형적으로 빼어난 잡지였다. 《뿌리깊은나무》 발행인인 한창기의 예리한 ‘눈썰미’와 그 눈썰미가 발굴해낸 디자이너 이상철의 감각에서 《삼이깊은물》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디자인 칼럼니스트 김신은 “이러한 디자인은 한국 대중 여성지 가운데

14 이와 관련지어 최재균은 다음과 같이 썼다. “《삼이깊은물》은 1984년 11월에 창간되어 2001년까지 발행되었으나 1997년 2월 3일 발행 - 편집인 한창기 사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잡지 정신의 정통성과 일관성이 손상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최재균, 「월간잡지 《삼이깊은물》에서의 사진 활용에 대한 연구: 표지 사진, 사진 화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3), p.3) 과거 《삼이깊은물》에 몸담았던 관계자들 또한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샘이깊은물》을 한국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잡지로 기억하게 만들었다”¹⁵⁾라고 말했으며, 한글 디자이너 석금호는 동시대 80년대 잡지인 월간《멋》과 함께 《샘이깊은물》의 정갈한 타이포그래피를 높게 평가했다.¹⁶⁾ 사진 편집위원회도 또한 잡지로선 처음 도입하여 양질의 사진 저널리즘을 꾀했으며, 잡지 섹션마다 유연하게 운영된 그리드 포맷은 이상철과 미술부원들의 감각이 한층 더 단련되었음을 보여줬다. 이상철의 아트디렉팅 하에 미술부 이용주, 박영신¹⁷⁾, 이영미 디자이너 등이 본문 디자인에 관여했다.

본문 디자인의 경우, 잡지는 앞선 《뿌리깊은나무》보다 안정되고, 완성도 높은 지면을 선보였다. 기사는 글의 유형에 따라 2-3단 운영을 기본으로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펼침면을 6단으로 나눠 사진 캡션과 기사 본문 및 사진의 배치를 유기적으로 엮어 나갔다. 사진 캡션 좌우 혹은 위아래로 충분한 여백을 허용하고, 본문 기사는 양끝 맞춤, 캡션은 오른쪽 흘리기, 인용문은 가운데 맞춤 등 다층적 타이포그래피 운영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유연하고 세련된 지면 디자인이 탄생했다. 각 기사에 최적화된 사진 운영 또한 본문 지면의

15 김신, 「디자인, “잘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 『특집, 한창기』, (창비, 2008), p.378

16 “《샘이깊은물》잡지만이 13급 3단 본문에서 행간 20치, 12급 3단 본문에서 행간 18치를 적용하여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석금호, 『특집: 매거진 디자인』, 《월간 디자인》 6월호, (디자인하우스, 1988), p.85

17 박영신, 『특집: 매거진 디자인』, 《월간 디자인》 6월호, (디자인하우스, 1988), p.101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사진 편집위원회도 도입의 역할이 컸다고 판단되는 지점이다.

이 밖에도 종이와 인쇄에 대한 검토, 204쪽으로 제한시킨 볼륨 등은 당시 일반 잡지는 범접하기 어려웠던 잡지에 대한 디자인적 신념이자 내공이었다. 표지는 이중 가장 돋보이는 디자인이었다.

“아무튼 많은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했던 《샘이깊은물》의 흑백 표지는 무엇보다도 원색으로도 모자라 금박, 은박을 더하기도 하며 미친 듯이 야해져 있었던 다른 잡지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채택되었다.”¹⁸⁾ 탈네모폴의 잡지 제호¹⁹⁾, 일반 여성의 기용과 촬영뿐만 아니라 표지 인쇄까지 《샘이깊은물》 표지는 개념적 접근뿐만 아니라 물성에서도 세심한 공정의 연속이었다. 이 중에서도 강운구가 찍은 표지 사진은 표지의 독보적 존재감에 한몫했다.

표지 사진[그림 3]은 창간호와 일부

18 설호정, 「가정 잡지 또는 여성 잡지? 아니...」, p.87

19 강승연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상철은 한창기와 함께 《뿌리깊은나무》를 작업하면서 끊임없이 한글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했다. 한국의 토박이 문화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한글표현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고, 올바른 한글표현을 위한 한글꼴 연구의 결실이 ‘샘이깊은물체’였다. 《뿌리깊은나무》를 통해 쌓인 한글에 대한 철학이 ‘샘이깊은물체’에 담겼고, 잡지 《샘이깊은물》의 제호로 사용되면서 ‘샘이깊은물체’는 잡지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이는 단순한 탈네모를 글자꼴의 실용화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줬다. 또한 ‘한글을 사용하는 누구나 아름다운 글자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이 ‘샘이깊은물체’를 사용하고, 또 발전시켜나가기를 바랐던 한창기와 이상철의 생각이 ‘샘이깊은물체’에 담겨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승연, 「디자이너 이상철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20), pp.83-84

정월호(1987년 1월호, 1988년 1월호, 1989년 1월호, 1989년 11월호)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 여성이 모델로 등장했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 공인들이 대개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일반 여성 발탁은 획기적이었다. 편집진이 처음부터 일반 여성을 기용하거나 사진을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니다. 주인공은 여성이어야 하되 이를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이 애초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이 시도가 벽에 부딪히면서 창간호 표지는 옛 그림에서 어렵게 찾은 여성 인물로 해결하고, 이후에는 사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²⁰⁾

그림에서 사진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일이 더 수월하게 풀린 것은 아니었다. 《샘이깊은물》만의 ‘여성을 제시하는’ 나름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설호정은 설명한다.

20 표지의 콘셉트 변경에 관한 에피소드에 대해 설호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창간호의 표지는 이미 적었듯이 옛 그림 속의 여자였다. 기억하건대 애초 발행인과 편집장(창간호부터 그 이듬해 3월호까지의 편집장은 《뿌리깊은나무》의 김형윤이 맡았고 그 뒤를 설호정이 이었다), 미술, 사진 편집 위원들은 현대 여성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지로 쓰는 것을 시도하기로 했다. 몇 화가에게 청탁하여 그림이 왔다. 한마디로 몹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발행인이 그때부터 황급히 골동 가게를 다니며 옛 그림들을 뒤져서 그 ‘옛머리 여성’을 찾아냈다. 그러나 옛 그림에서 여자를 찾는 일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발행인이 더 잘 알았다. 특히 표지로 삼을 만큼 크게 그린 어여쁜 여자 얼굴을 옛 그림에서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옛 여자 그림을 표지로 삼음으로써 《샘이깊은물》에 복고의 그림자가 오버랩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는 것이 편집실의 지배적 의견이어서 창간호 다음 호부터는 사진으로 가기로 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의 발품의 결과로 옛 그림이 십 년 동안 일곱 차례 실렸다. 돌이켜보면 이 또한 훌륭한 자료가 되었다.” 설호정, 「가정 잡지 또는 여성 잡지? 아니...」, p.87



[그림 3] 《샘이깊은물》의 다양한 표지 유형(상단 좌-우: 1985.2, 1985.5, 1985.11 / 하단 좌-우: 1986.3, 1987.12, 1989.3): 발행 초기에는 ‘가정’ 혹은 ‘가족’이라는 주제가 포착되고, 모성애를 강조하는 듯한 사진들이 종종 실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회화에서 모티브를 갖고 오기도 했다. 1986년도로 넘어와서야 여성 중심의 잡지 표지 사진 콘셉트가 정착한다.

그러나 ‘유명하지 않으면서 사진이 잘 받고, 《샘이깊은물》의 독자층에 걸맞은 지성을 갖춘 여성’을 찾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게다가 ‘얼굴에 칼 덴’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여기저기서 노골화한 잡지였던 만큼 성형의 의혹이 제기되기만 해도 카메라를 들이대지조차 않았으니 더더욱 지난한 과업이었다. 털어놓건대, 발행인을 비롯해 기자, 디자이너 할 것 없이 스쳐 지나가는 여자조차 무심히 보지 않는 버릇을 기를 수밖에 없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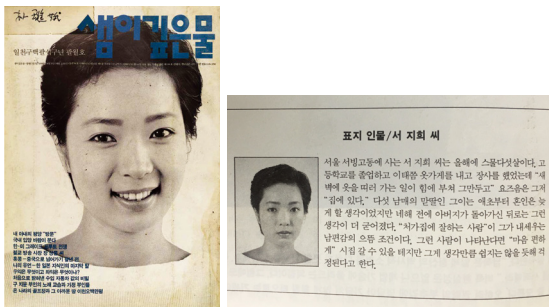
21 설호정, 「가정 잡지 또는 여성 잡지? 아니...」, p.89

편집부에서는 모델과 짧은 인터뷰를 기반으로 그의 직업과 일상 등을 담은 간략한 표지 설명을 작성했다. 이 표지 설명은 사진에 대한 보조적 장치라고만 치부하기에 1980년대 한국 여성의 삶이 밀도 있게 압축되어 있었다.

3.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

3.1. 조형적 특징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은 쉽게 식별 가능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표지 모델이 일반 젊은 여성이며, 둘째, 정면성이 부각되고, 셋째, 흑백 조의 사진이다. 이중 모녀/모자 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제외하면(85년 1월호-3월호, 85년 5월호, 86년 1월-3월호)[그림 3] 89년 12월호까지 생산된 55종의 표지는 전형적인 초상 사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스듬하게 측면을 보거나(85년 4월호, 89년 5-6월호) 과감한 옆면(프로필)을 촬영한 사진(88년 10월호) 외에 사진 속 인물들은 독자와 시선을 마주치며 정면을 응시한다. 상단에 여백을 많이 둔 경우를 제외하면, 46



[그림 4] 표지사진과 표지사진 설명(1989.8): 표지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잡지 본문에 상가 기사 형식으로 등장한다.

배판 프레임 안에 포착된 인물의 얼굴은 대부분 중앙에 자리해 있으며, 표지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잡지는 인쇄에도 큰 공을 들였는데, 표지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표지에는 뒤표지에 실린 칼라 광고, 표지의 제호 및 커버 라인에 적용된 별색 등을 염두에 둘 때 기본 5-6도 잉크를 사용했다. 최재균은 표지 사진의 경우, 일반 흑백 사진에 K 하나만을 사용하는 반면, 《샘이깊은물》은 깊이 있는 계조 표현을 위해 CMY를 약한 농도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²²⁾

사진가 강운구²³⁾는 잡지의 표지 사진을 주로 담당했던 인물로서, 《샘이깊은물》에 종사했던 많은 이들이 증언하듯 표지는 강운구의 미감이 발현된 초상 사진 연작이다. 표지에 등장하는 모델은 수소문해서 섭외하거나, 때에 따라 잡지사 내부 직원의 가족이기도 했다. 강운구는 계절감을 나타내기 위해 야외 촬영을 선호했지만, 실내 스튜디오 촬영도

22 최재균, 「월간잡지 《샘이깊은물》에서의 사진 활용에 대한 연구: 표지 사진, 사진화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3), p.44

23 "강운구(1941-)는 1970년 동아일보사 출판국 사진부에 들어가 일했으나, 1975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 가담하여 농성하던 중 해직되었다. 1983년부터 『샘이깊은물』에서 사진편집위원과 프리랜서 사진가로 일했으며, 이때 한국 잡지 사상 최장기간인 십 년 동안 「이 마을 이 식구」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연재했다. -중략- 강운구는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국민들을 끊임없이 기록해 왔으며, 외국 사진 이론의 잣대를 걷어내고 우리의 시각언어로써 포토 저널리즘과 작가주의적 영상을 개척하여 가장 한국적인 질감의 사진을 남기는 사진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http://youlhwadang.co.kr/auth/881>, (2020.7.24)

병행했다. 적절한 촬영 컷을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인화한 후 이 중 몇 종을 뽑아 편집부에 전달하면, 편집부는 표지에 어울리는 최종 사진을 선정했다. 발행 초기, 강운구는 1970년대에 미리 찍어 두었던 가족 사진, 즉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등의 예스러운 사진을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편집부의 주장으로 젊은 여성이 단독 등장하는 방향으로 수정, 변경되었다.

3.2. 표지 설명

《샘이깊은물》 표지 사진의 또 다른 특징으로 사진 캡션의 역할을 하는 표지 설명을 언급할 수 있다. 잡지 표지에서 표지 캡션은 흔한 개념이지만, 운영 방식은 잡지 편집 방향에 따라 상이하다. 표지를 설명하는 캡션의 위치와 분량 그리고 내용은 표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다수 표지 설명은 글자 크기가 작거나 주목도가 낮은 곳에 조판됨으로써 표지에 가하는 영향은 미미하다.

《샘이깊은물》의 표지 설명도 숨어 있다. 다만, 운영 방식이 다르다. 두 종의 표지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표지 설명은 짧은 단문으로 모델의 거주지와 이름만을 간단하게 알린다. 이 설명은 차례 페이지 가장 하단에 위치한다. 해당 캡션에는 괄호 속 “-면 참조”를 가리키는 하나의 링크가 있다. 해당 면수로 이동하면 인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수록된 상자 기사를 만난다. [그림 4] 400자 내외의 초상 사진에 관한 설명이 자리한 것이다. 독자들은 잡지 본문을 들춰 보다가 예상치 못했던 이 상자 기사를 만나고

무명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는다.²⁴⁾ 일부 표지 설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 서초동에 사는 서혜례 씨가 딸 주홍이를 업고 있다(131면 참조). 그는 올에 스물아홉살이다. 1982년에 동갑나기인 이성식 씨와 혼인하여 이듬해 여름에 얻은 딸이 등에 업은 주홍이다. 이 사진에서는 딸을 업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어쩌다 보이는 것이고, 그도 요새 젊은 여자들처럼 아이를 등에 업고 잠재우거나 나들이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혼인한 지 세 해밖에 안 되어 아직은 신혼 기분에 젖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그에게도 요새 마음에 조금씩 그림자가 짙 때가 있다. 아이를 돌보고 밥 짓고 빨래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하는 일들이 고되기는커녕 즐거운 일에 드는 것임은 틀림없지만 “이대로만 살아야 하느냐”는 의문이 이따금 생기는 것이다. 굳이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했고, 교수의 연구실에서 조교 생활을 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의 울”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이 여성의 운명이라면 아무래도 좀 가혹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이 결코 어둡지는 않다. “아기는 대충대충 키우고 있죠”라고 밝게

24 표지 설명은 1989년 11월호를 시작으로 두세 문장으로 줄어들더니 1990년대로 넘어가며 사라진다. 이 배경에는 개인 사생활 노출 우려와 섭외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웃으며 말하는 그는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방송국에 다니고 있는 남편과 딸 주홍이와 시동생 한 명과 단란하게 지내고 있다.²⁵⁾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 사는 김혜정 씨(24면 참조). 올해 스물일곱 살인 김혜정 씨는 서울에서 나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스무 살에 동갑인 지금의 남편과 혼인하여 일곱 살 난 여자아이와 여섯 살 난 사내아이를 두었다.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의 하루는 “전형적인” 가정부인의 하루라고 할 수 있으니, 아침 일곱 시쯤 일어나서 식구들의 아침상을 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아침이 끝나면 서둘러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다. 가끔 친구를 만나거나 장안동에 있는 친정집엘 다녀오는 것 말고는 별로 외출을 하지 않는다. 그는 요즈음 아이들이 점점 자라니까 트럭 운전을 하는 남편의 수입으로는 모자라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궁리하고 있다.²⁶⁾

서울 혜화동에 사는 박영민 씨(97면 참조) 서울의 혜화동에 살며 올해 꼭 스무 살이다. 박영민 씨는 말하자면 이

나라가 근대화와 개발 바람 속에 어지러운 만큼 변화를 거듭하던 육십년대 말에 태어난 “신세대”이다. 구김 없고 밝은 그가 처음으로 맞본 “인생의 쓴잔”이 지난해의 대입 낙방이다. 그는 세상이 재수생을 보는 눈이 착잡하고,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 교육 제도의 희생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지 않는 바는 아니나, 우선 코앞으로 다가올 두 번째 도전을 예비하는 데에 바빠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려 하는데, 그것은 장차 민완한 여기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한다. 용모가 참하나 아나운서가 어떠한 사람도 있으나,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기자 쪽에 더 끌려 한다.²⁷⁾

여기서 여성의 주체적 삶을 희망했던 잡지 《샘이깊은물》이 무명의 일반 여성의 삶을 설명하는 장치로 표지 설명을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한국 여성의 평균적 삶과 사회의 여성관, 여성주의 운동 및 잡지가 노골적으로 기사화했던 한국 사회 내 여성 문제라는 복합적 관계망을 염두에 둘 때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과 표지 설명은 당시 사회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한국 여성의 자리를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25 《샘이깊은물》 2월호, (1985), p.131

26 《샘이깊은물》 6월호, (1986), p.24

27 《샘이깊은물》 8월호, (1988), p.97

4. '1980년대 여성'에 관한 세 가지 텍스트

잡지의 표지 사진이 갖는 여성주의적 함의를 고찰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당시 여성의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샘이깊은물》의 표지가 잡지의 '여성' 중심 편집 노선의 상징이었던 만큼, 표지 사진 연구에는 1980년대 여성의 가정 및 사회 내 지위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표지 사진의 여성주의적 함의를 검토하기 위해 제시하는 단서는 총 세 가지다. 첫째, 잡지의 여성 관련 기사, 둘째, 1980년대 여성 독서 문화, 마지막으로 같은 시기의 여성 운동이다.

잡지 표지는 시대의 산물임과 동시에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미지다. 잡지 표지야말로 한 시대의 의미 교환의 장 한가운데 정박하거나 부유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잡지는 특정 시대의 문화가 지닌 진보적, 통속적 혹은 전통적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선이기도 하다. 이는 곧 잡지 표지에 대한 조형적 분석만으로는 잡지 표지가 발산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포착할 수 없음을 뜻한다. 즉, 잡지가 탄생한 시대에 대한 동시적이고 입체적인 고찰이 부재하는 한, 표지에 대한 이해는 이미지의 표면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납작한 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여러 의미의 지층들이 표지 이면에 있음을 의심하거나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는 잡지 표지에 대한 하나의 균질하고도 단일한 평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샘이깊은물》의 표지에 대한, 긍정 일변도의

세간의 평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잡지가 주체어로 품었던 '여성'이라는 단어는 남성과 구분되는 성별이라는 기계적 정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복잡한 기호다. 뜻을 품은 모든 단어는 맥락 혹은 문화권에 따라 다면체의 기호로 변모한다. 여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통되는가에 따라 그것이 포괄하거나 수용하며 대변하는 의미의 폭은 좁고 동시에 넓을 수 있다. 1980년대 생경한 표지를 제안했던 《샘이깊은물》은 과연 당시 진보적 여성상을 대변하는 장(場)이었던가. 연구 질문은 여기서 시작한다.

4.1. 여성 관련 기사

《샘이깊은물》은 창간호부터 '비판적 여성지'라는 인상을 확고하게 남겼다. 김수환 추기경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 김지하의 「보고 싶은 여장부」, 송정숙의 「어려운 여자 출세」부터 시작하여, 「먼 나라의 한국 여자」, 「내 딸의 혼인 비용」, 「정신과 의사와 착한 아내」, 「담배와 한국 여자」, 「자궁 가족 속의 여자 처세」 그리고 연재 대담인 「말 1984/11/가족법과 우리 여자」까지 차례에 소개된 총 45개의 기사 중 4분의 1 이상이 '여성'을 소재로 한 사회 비판적 이슈를 다루었다. '새로운' 현대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의 덕목과 교양을 논하는 여성 관련 기사(「김씨 부인의 가을 옷차림」, 「여자 한복」, 「새암하는 여자」 등)까지 포함하면 잡지의 3분의 1가량이 '여성'을 소재로 했다. 잡지의 이러한 성향은 창간호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닌, 1980년대 말에 가서는 더 무르익었다. 잡지의

주제	발행년월	필자	기사 제목
가부장제	1984 11	김지하	보고 싶은 여장부
		임돈희	자궁 가족 속의 여자 처세
	1985 04	애그네스 데이비스 m김	딸이 무슨 죄가 있길래
	1986 01	김현중	딸이 모자라 탈난 세상
	1986 11	샘이깊은물 편집부	백일 사진과 자지
가정 내 여성	1986 11	이태영	이 나라의 여자 팔자
	1985 08	문숙재	가사 노동과 가정 부인
	1985 08	박완서	"서 있는 여자"의 갈등
남성폭력	1987 02	허순희, 김미경, 김효선	한국 여자의 사랑 방법
	1985 07	-	말 1985/7 남편의 폭력
	1986 09	한경자	매 맞고 산 삼십년 세월
	1987 05	김미경	여성의 전화 "싫터": 매맞는 아내도 갈 데가 생겼다
직장 내 여성	1989 10	오숙희	여성의 전화의 <굴레를 벗고서>: 아내를 때리는 남편
	1984 11	송정숙	대학 졸업 여자의 취직, 어려운 여자 출세
	1985 03	-	말 1985/3 여자화 직장
	1986 09	유명숙	직장 있는 여자의 어미 노릇
	1987 05	이윤림	여선생의 선생 자격
성희롱과 성매매	1988 02	이명선	여의사 되기 한번 고달프다
	1985 10	김영생	내가 몰래 만나는 여자들
	1985 11	정희숙	"마담"이 본 서울 남자의 술버릇
	1986 05	설호정	제주도 땅에 물리는 관광 기생
	1986 11	정기화	나의 "몸파는" 여자 생각

[표 2] 1980년대 <샘이깊은물>에 게재된 '여성' 관련 기사 일부

여성 관련 기사의 예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이는 수집한 300여 종 이상의 여성 관련 기사 중 극히 일부분임을 덧붙인다. [표 2]

여러 진보적 인사들이 여성인권에 관한 글들을 투고했다. 일부 선정적이고 가십성의 기사가 없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기조는 성차로 야기되는 폭력 문제를 심도 있게 취재하고 비판했다. 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우선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부모의 처지에서 보면 딸은 애써 길러도 마침내 남의 식구가 될 소용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여자아이는 어려서부터 인척이 남자 형제와 다른 대우를 받음을 느낀다. 남자 형제의 요구는 바로 충족되지만 여자아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여자아이는 이와 같은 불리함에 대처하는 기술을 남자아이보다 먼저 개발한다. 곧,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여러 가지 처세법들,

이를테면, 어른들 눈치 보기, 기분 살리기
따위에 아주 능란하다.²⁸⁾

남편이 갖고 온 의료 기구 깡통에는
가위와 핀셋, 송곳들이 들어 있었다.
그걸 내 앞에 놓고 누워서 노려보고
태연히 들고 있다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느껴지면 별떡 일어나서 한
차례의 발길질과 주먹질이 내려지고 때릴
때보다도 더 무섭게 바짝 다가와서
대답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송곳으로
찌르다가 가위로 뜨적거렸다. 코허리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너무 부어서
얼굴의 굴곡이 없어졌고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중략- 나는 어떡하면 이 소굴을
빠져나가서 이 집과 이 남자를 고발할까만
생각했다.²⁹⁾

병원에서 우리는 꼭해야 “여자치고는
잘한다” 소리 들으면 별 탈 없다는 평가로
알아들으면 된다. 늘, 자정이 넘어서, 어떤
날은 두시나 되어서 눈을 붙였다가 대어섯
시면 다시 자리를 박차고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서너 시간 자고 환자 앞에 앉으면
어떤 날은 입을 열어도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도 절대로 일에 치인
티를 낼 수는 없다. 적어도 “여자치고는

잘해야” 배겨낼 수 있으니까.³⁰⁾

점심때도 반드시 소주를 곁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동료가 말하기를 “다방에
가서 아가씨 손도 좀 만져 보고 허튼소리도
좀 하는 사람이라야 풍류도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법”이라는 것이다. 그런 걸
다 너그럽게 보아 넘길 수 있어야 신문
기자로서 폭도 넓어진다는 식의 논리를
그는 장황하게 펼쳤다.³¹⁾

앞선 몇 가지 기사 제목과 인용문을
근거로 볼 때, 잡지는 가정과 직장 내 여성이
겪는 부당한 성차별에 대해 낱말이 보고했으며,
국가와 가부장제 문화가 결탁하여 제도화시킨
성매매와 성폭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 때에 따라,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무감각한 남성 중심 질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이어졌다. 잡지는 여성 관련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여성지’였으나, 독자인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깨닫고, 그에게 구조적
결함과 부당함이 무엇이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
시켜 준다는 점에서 당시 교양지로선 보기 드문
‘여성 중심’ 노선의 페미니스트 잡지였다고 볼 수
있다.

28 임돈희, 「자궁 가족 속의 여자 처세」, 《샘이깊은물》 11월호, (1984), p.156

29 한경자, 「가정 부인 매 맞고 산 삼십년 세월」, 《샘이깊은물》 9월호, (1986), p.149

30 이명선, 「의사 여의사 되기 한번 고달프다」, 《샘이깊은물》 2월호, (1988), p.180

31 송정숙, 「요새 남자의 퇴폐 기질: 한 여자 면도사의 말」, 《샘이깊은물》 4월호, (1986), p.16

4.2. 여성 독서 문화

그렇다면 앞선 성격의 기사를 접하고 읽고 공감했을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의 독서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질문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글이 문화평론가 오혜진의 「1980년대 여성독서사와 '타자'들의 책 읽기: 할리퀸, 《여성동아》³²⁾이다.

오혜진은 '할리퀸,' 《여성동아》, '박완서'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1980년대 여성독서사에 대해 고찰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그 시작이 김현의 『행복한 책 읽기』라는 점이다. 오혜진에 따르면 김현은 자신의 글에서 종종 '마누라'를 등장시키는데, 이 마누라는 독서가 수행되지 않는, 유희와 유희의 공간에서만 나타난다. 다시 말해, 김현에 의해 그의 부인은 "마누라"라는 이름으로 '반 독서의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다. 여기서 오혜진은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1980년대 여성은 책과 담을 쌓은 존재였을까,

1980년대 각종 신문 기사와 관련 담론에 의하면, '주부'는 언제나 '가장 책을 안 읽는 집단' 중 하나였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주부'들이 유일하게 읽는 독서물은 '여성동아, 주부생활, 가정조선, 여원 등과

같은 여성잡지, 주부잡지다. 여성지를 읽는 것은 '후진적' 독서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독서를 안 하기 위한 독서'(반 독서)로까지 이야기되며 당시 '지식인들'에게 신랄한 비난의 대상이 됐다.³³⁾

1980년대 여성은 '기껏해야' 여성지를 읽는 독자였고, 이것은 종종 비하의 대상이었다. '지성인'이자 '이성애자'인 김현과 같은 기독교의 시선에서 여성의 독서는 그것이 제아무리 잡지일지라도 남성의 근엄한 독서의 행태와 성격에는 따라오지 못한다는 폄하가 깔려있다는 게 요지다. 이 대목은 잡지 《샘이깊은물》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샘이깊은물》이야 말로 남성 지배 질서에 의해 비하의 대상으로 읽혔던 소위 '여성지'들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지성적' 여성지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대학 나온 여성 지성인들이 처음 출현했던 때가 1980년대임을 상기할 때 1980년대는 여성들의 학습 의욕과 일에 대한 욕망이 없었던 시기가 아니다.³⁴⁾ 이는

32 오혜진, 「1980년대 여성독서사와 '타자'들의 책읽기: 할리퀸, 《여성동아》, 『원본 없는 판타지』, (후마니타스, 2020), pp.211-258

33 오혜진, 「1980년대 여성독서사와 '타자'들의 책읽기: 할리퀸, 《여성동아》, p.236

34 오혜진은 교육받은 여성 생애사를 연구한 이혜정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했다. "고등교육을 경험한 여성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당시 고등교육 기관의 여성 비율은 평균 26.7%인데, 1980년대에는 대학 수의 급증과 함께 성별 교육 불평등 현상이 점차 완화된다. 이때 강조되어야 할 것은, 1970년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소수의 여성은 곧 대졸 여성에게 굳게 닫혀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고학력의

《샘이깊은물》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욕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이깊은물》의 표지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은 가정과 육아라는 길로 취사선택을 강요당한다. 독서의 한 경로로서 여성지를 탐독하고, 그 안에서 박완서와 같은 중산층 여성의 삶과 세속적 욕망을 드러내는 작가들 통해 여성 수필이라는 주변화된 장르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대입한다. 이와 같은 1980년대 여성의 독서 경험을 염두에 둘 때, 《샘이깊은물》은 오묘한 자리를 차지한다.

잡지의 독자층이 어떤 계층의 여성이었는지는 정량적 통계로 제시된바 없으나, 잡지 관계자들의 전언과 표지 설명의 여성 이력을 근거로 고학력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대다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샘이깊은물》은 기존 여성지와 차별화라는 과제 속에서 여타 여성지에 소위 ‘통속적’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 매체가 말로 남성 중심의 독서사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여성들이 탐독할 수밖에 없었던 독서 매체이기도 했다. 여기서 《샘이깊은물》은 기존 남성 지식인들이 1980년대 여성의 독서문화에 투사한 시선을 공유한다. 동시에 가부장제를 가열차게 비판하고 여성을 계몽한다. 《샘이깊은물》의 이러한 양가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표지의 함의는 이 질문과 함께 고찰될 필요가 있다.

4.3. 여성 운동

마지막 고려대상은 여성 운동이다.

1980년대는 한국 현대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아한 시대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한국 여성운동의 궤적을 논하는 대다수 연구는 1980년대를 모두 역사적 전환기로 지목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는 글 하나를 대표적으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70년대의 여성 문제의 제기과 올바른 인식 정립의 모색이라는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회 운동권과 사회과학이론의 인식의 전환이었다. 역사의 와중에서 여성운동이 식민지 시대 이래의 해방적, 저항적 전통과 철저히 단절된 채 일부 여류명사들 중심의 여성 지위 향상 운동에 머물러거나, 더욱 나쁘게는 관제·어용화의 길로 전락해온 것, 중산층·지식층 여성의 친목 도모나 봉사활동으로 그치고 있었던 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여성 문제를 전체 사회구조의 모순과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났다.³⁵⁾

여성조차 자신의 ‘공부’를 이어가거나,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오혜진, 「1980년대 여성독서사와 ‘타자’들의 책 읽기: 할리퀸, 《여성동아》, p.240

35 이송희, 「80년대 한국 여성운동」, 『여성연구논집』 13권,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2), p.64

앞선 시대와 다르게 운동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여러 단체의 설립 또한 활발해졌다.³⁶⁾ 여성에 대한 이해와 운동의 양상이 보다 세분화되고, 주변부의 존재를 가시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 운동의 성과는 여학생과 여성 지식인 및 여성 노동자와 주부의 부상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여성운동의 특징은 ‘새로운’ 여성운동 주체의 등장과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움’은 크게 두 가지 지점과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여성운동과 여성해방론의 담론 생산자로서의 여학생과 여성 지식인이 등장했으며 여성운동 범주에서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여성 노동자, 주부, 빈민 여성, 지역 여성, 사무직 여성 등이 새로운 변혁적 주체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연구소나 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국사회의 모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제도화된 대학 학술장의 경계를 넘어, 무크지, 계간지 등의 언론·출판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다. 이 시기, 여성운동의 조직화에서, 운동 현장의 실천성이 강조되었고, 실천을 과학적으로 조직화하려는 변혁적인 여성해방론의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간주되었다. 이론과 실천, 양자의 접촉면 확대와 더불어 출판을 통해 대중의 주체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여성들을 의식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이자 전 시기와의 뚜렷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³⁷⁾

이 대목에서 주목할 지점은 주부의 등장과 인쇄물을 통한 운동의 확장이다. ‘주부’는 앞선 여성의 독서 문화 관련 절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여성지’ 경쟁이 치열해질 만큼 출판 시장의 주요 독자층으로 부상했다. 《샘이깊은물》이 특정 영역과 계층의 여성을 호명하지 않았어도 대다수 기사가 가정 및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다루고, 표지 설명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이 주부임을 고려할 때 《샘이깊은물》의 주 독자층 또한 주부였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무크지와 같은 인쇄물은 여성주의 담론이 기존 아카데미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과 문화 영역으로 흐르는데 수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샘이깊은물》은 19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성과 안에 자리한 모습이다. 대중교양지라는 잡지의

36 김영선은 각주를 통해 1980년대 여성 단체들을 나열한다. “1980년대는 가히 여성운동의 조직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조직화된 단체로는 여성평우회(1983), 여성의전화(1984), 기독교민회(1986), 민중불교운동연합여성부(1986), 전국여성농민위원회(1989)가 있으며, 여성 활동부서로는 민청련 여성부(1984),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1984), 민중불교운동연합 여성부(1986), 여성민우회(1987), 여성노동자회(1987), 한국여성운동연합(1987) 등이 있다. 위의 전국단위 여성조직들 외에도 1987년에 경남여성회, 제주여성회, 충남여민회가 차례로 만들어졌고, 1988년에는 대구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전북민주여성회, 거창여성회, 1989년에는 부천여성노동자회와 성남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농민회가 활동을 시작 했다.”: 김영선, 『1980년대 여성운동의 새로운 여성 주체 기획과 주부운동론』, 『여성과 역사』 28, (한국여성사학회, 2018), p.242

37 김영선, 『1980년대 여성운동의 새로운 여성 주체 기획과 주부운동론』, p.243

선택, 그 지면에 수록된 글들은 한국 여성운동의
 계보와 무관하지 않다.³⁸⁾ 《샘이깊은물》은
 ‘주부’의 목소리를 직접 나르거나 대변했으며,
 ‘가정지’라는 이름으로 기존 여성지에 ‘시사’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포맷의 여성을 위한 잡지를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5. 《샘이깊은물》 표지 사진의 여성주의적 함의

강운구가 찍은 표지의 초상 사진은
 강렬한 조형적 힘을 발산한다. 여성들은 때로는
 무표정하게, 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독자들을
 응시한다. 이들은 모두 1980년대를 살았던
 한국의 20-30대 여성들로서, 수집이라는
 계열체 안에서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뽐낸다.
 이것은 다소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경험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일반’ 여성이
 주인공으로 정면에 등장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샘이깊은물》 표지의 조형적 특징은
 이 지점에서 부각된다. 사진 속 인물의 시선은
 독자의 시선과 정면으로 만난다. 이로 인해,
 사진 속 여성과 독자는 표지를 통해 시선을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존재는 표지라는
 틀을 넘어 독자에게 각인된다. 무명의 여성들이
 잡지 표지라는 공적 무대에 자신의 존재감을

38 《샘이깊은물》과 19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관계는 여성학
 분야에서 별도로 탐구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다. 이 부분이
 연구되어야만 《샘이깊은물》이 여성주의적 담론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상이 더 뚜렷하게 포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이 논문을 쓰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드러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진은 인물과 친숙했다.
 19세기 사진 발명 이후 사진에 대대적으로
 포착된 피사체는 인물이었다. 사진과 인물은
 ‘초상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결속력을
 타고났다. 그러나 이 초상 사진도 사진의 유형과
 담아내는 인물 유형 및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도 달라졌다. 사람들은 초상 사진을 통해
 타인을 경배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대리물로 삼는가 하면, 가닿을 수 없는 인물을
 사진으로 매매하거나 소장했다. 초상 사진이
 가진 이러한 특유의 ‘제의적’ 성격으로 인해³⁹⁾
 그라함 클라크의 설명대로 “모든 정황 내에서
 초상사진은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⁴⁰⁾ 그리고
 이러한 모호함은 초상 사진의 범용성에서도
 기인하는바, 초상은 여러 사회 문제가 각인되는
 사회적 몸이기도 하다.

‘2013 서울사진축제’는 초상 사진을 주제를
 선보인 바 있다. 전시에 참여한 국내 사진가들은
 초상 사진을 통해 가족 이데올로기, 사회상,
 역사, 정체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⁴¹⁾ 이 일련의
 초상 사진들은 인물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는
 ‘진실’의 ‘모사’ 차원을 넘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났던 존재를 ‘가시화’하는 저항 매개가

39 초상 사진이 갖는 제의적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최원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신과 함께」, 『VOSTOK: 사진 속
 얼굴』 8호, (보스토크 프레스, 2018, 3-4), pp.160-165

40 그라함 클라크, 「사진에서의 초상」, 『포토그래피: 이미지를
 읽는 새로운 방법』, 진동선 옮김, (시공아트, 2006), p.111

41 『2013 서울사진축제: 시대의 초상, 초상의 시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2013), pp.56-137

된다. 초상 사진은 존재를 증명받지 못했던 삶에 대한 시각적 증언이자 사회의 소수자를 담았을 경우, 그 자체가 ‘커밍아웃’의 한 수단이다. 이때 사진은 주변부의 존재를 가시권 안으로 끌어오는 같고리다.

그렇다면 《샘이깊은물》 표지 사진의 표상은 무엇일까? 1980년대는 가정 내 남성 폭력이 빈번했으며, 국가 주도의 성매매 관광이 어느새 유산이 되어 정착하고 있었는가 하면, 여성은 가정, 남성은 일터라는 이분법이 여전히 사회의 강력 기체로서 작동하던 때이자 룸살롱이나 유흥업소를 통한 남성들의 성매매가 일의 연장으로서 수용되었고, 초음파 검사의 도입이 곧 여아 낙태로 직결되었던 시대였다. 여성은 이중고의 억압과 저항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대였다. 그런 의미에서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은 1980년대 한국 여성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담대한 프로젝트이자,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부장제가 암묵적으로 재생산한 일방적 여성관으로부터 이탈하는 저항이자 선언이라고 의미 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표지 사진은 1980년대 군부정권 속에서 한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여성 한 명, 한 명을 호명했다.

덧붙여, 이런 ‘하찮음’과 ‘사소함’이 하나둘씩 모임으로써 1980년대 한국 20-30대 여성에 대한 파편적 미시사가 구축되었다. 여성 서사가 부재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60여 편에 이르는 표지 설명의 단편적 사연들은 격랑기의 한국 현대를 살았던 20-30대 한국 여성들의 직업, 꿈, 가치관, 가족 관계 등을 투영해 나간 보고(寶庫)다. 무명의 인물들

제시한 표지 사진은 표지 사진 설명 덕분에 한국의 여성 서사로 확장된다. 사진에 의존적인 캡션이지만, 사진은 역으로 캡션 덕분에 목격한 ‘서사’를 획득했다. 표지에서 마주한 무명의 여성이 ‘캡션’이라는 입을 빌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표지가 이들의 존재를 정면에 드러내는 무대였다면, 표지 설명은 이들에게 허락된 무대 위에서의 입, 곧 발언권이였다.

이러한 문화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표지 사진은 1980년대라는 시대적 프레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대다수 표지 설명에서 드러나듯이 여성들의 삶은 시대가 이미 설정해 놓은 여성관을 바탕으로 기술되고 있다. ‘여성 → 교육 혹은 대학 → 취직 혹은 결혼 → 출산 혹은 자아실현’이라는 선형적이고 단선적인 삶의 전개도로부터의 과감한 이탈은 요원해 보인다.

진업주부의 경우를 보자. 표지 속 많은 여성이 대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시댁, 며느리, 양육자라는 가부장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동일한 패턴의 고민을 반복하고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양육과 자아실현 문제는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한다. 이를 애써 부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잡지는 충분히 진보적이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으나, 양육+결혼 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은 가부장제가 만들어 놓은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 관계는 병합과 공존이 아닌, 양자택일이다. 하나의 선택은 곧 다른 하나에 대한 포기다. 정상성에 대한 암묵적 강요 안에서 여성이 자연스럽게 택하는 것은 결혼이다.

표지 설명에 근거하면, 1980년대 한국 여성들의 삶은 대부분이 결혼으로 귀결되어야만

했다. 결혼 여부는 여성을 설명하는 필수 항목이었다. 다시 말해, 결혼 여부는 여성이 주체로 묘사되든 아니든 간에 여성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이력과도 같았다. 결혼을 매개로 한 남성 중심 가족 제도의 강력한 힘 때문인지 결혼한 여성들은 모두 자아실현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육아와 꿈 사이에서 갈등한다. 2020년을 사는 독자로서 이 대목을 읽는 것은 무기력함을 수반하는 독서 과정이었다.⁴²⁾

일반 여성들은 발언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지 설명을 통해 1980년대 일반 여성의 일상을 투명하게 드러낸 점은 《샘이깊은물》의 의도하지 않은 성과다. ‘2013 서울사진축제’가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에 전시 섹션의 일부를 할애하며

42 물론 표지 사진이 여성의 ‘통속적’ 삶을 묘사하진 않았다. 대학생들이나 갓 졸업한 여성의 경우, 이들의 당찬 포부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서울의 동빙고동에 사는 김주연 씨(22면 참조). 김주연 씨는 울에 스물여덟 살이다. 한때는 전공을 살려 의상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품기도 했으나 “여자는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혼인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친정어머니의 말을 좇아서, 대학을 졸업하던 그해에 그보다 두 살 위인 이세덕 씨와 혼인하였다. 그의 소망은 남편 얼굴을 꼭 닮은, 세 살과 네 살인 아들 둘이 죽대가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는 것밖에 별로 없다. 울에 여든이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동빙고동에서 살고 있다.”(1987년 6월호), “서울 대치동에 사는 이미영 씨(145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대치동에 사는 이미영 씨는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다섯 살 때에 “무엇이든 많이 배우도록 애쓰셨던” 어머니 손에 이끌려 아무 생각 없이 무용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어느새 “서양 춤이 남에게 보여 주는 테크닉을 중요시하는 데에 비해 우리 춤은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자기의 감동을 더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것이 한 수 위”라는 뚜렷한 조건을 갖게 되었다. 무용만큼이나 평론에도 관심이 있다는 그녀는 미개척 분야인 듯한 무용 평론계에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아무지게 말한다.”(1989년 4월호)

“이후(장간 후) 17년간 일반 여성을 표지 모델로 하여 현모양처는 물론 일하며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여성상과 여성의 자연미를 강조하며 현대사회의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⁴³⁾ 라고 평한 사실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2020년의 현재가 1980년대의 과거를 재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삶을 다루는 시선은 가부장제의 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잡지 《샘이깊은물》의 한계이자 동시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동안에 여성계에서는 민주화 투쟁을 제일의 급선무라고 인식하고 식상해 있던 독재 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주당을 음양으로 아끼고 지원해 왔다. 여성계에서 주도했던 성고문 사건, 케이비에스 시청료 거부 운동, 최루탄 추방 운동과 많은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일삼 호헌 철폐 운동, 유월 민주화 대행진, 칠월 이한열 추모 시위 따위의 민주화 투쟁이 민주당이 개헌 협상 자리에 앉는 시기를 앞당겼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계가 음양으로 지원한 바로 그 기간에도 민주당은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문제에 무관심해서 가부장적인 태도와 편견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그

43 『2013 서울사진축제: 시대의 초상, 초상의 시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2013), p.152

결과로 “여성 관계” 조항으로는 민정당
것보다도 모자란 개헌안을 가지고 개헌
협상 자리에 나와서 여성계의 비난을
받았다.⁴⁴⁾

《샘이깊은물》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묘한 변화가 나타난다. 여성 권리 행사로서의
투표를 강조하고 87년 체제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가 남성 운동가들의
전유물로만 조명될 때 《샘이깊은물》은
여성주의자들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반쪽 성만의 성취가 아닌, 여성의 희생과 운동에
의해 가능했음을 설교했다. 1980년대 여성주의
운동의 계보를 새롭게 그려나간 ‘또 하나의
문화’가 그런 역할을 다짐하며 여성과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글로써 독려하고
복기했다. 앞선 허순희의 글은 1987년이라는
상징적 해에 민주주의의 여성주의를 부각시키는
소중한 글이었다. “1980년대는 출판과 민주화가
서로를 밀고 끌어당긴 시대였다”⁴⁵⁾라는 평가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면, 《샘이깊은물》은 인쇄
매체로서 민주화의 한 여정에 여성의 족보를
새겨 나갔던 잡지였다. 그런 의미에서 잡지는
여성주의의 가치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어도
1980년대 한국 여성 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만큼 뚜렷한 여성주의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일반 여성이 등장했던 흑백 조의 표지

사진은 이러한 비전의 시각화였다.

역으로 표지 설명은 잡지가 그리고자
하는 세계관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1980년대의 시간을 보다 투명하게 보여줬다.
표지가 미래의 시제였다면, 표지 설명은 현재의
시제였다. 이 두 시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샘이깊은물》의 표지에 나타난 여성상은 미래와
현실 사이를 수시로 오가며 미세하게 분열한다.
그것은 마치 렌티큘러와도 같아서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거나 달라져도 다른 이미지와
동시에 다른 의미가 달라붙는다.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은 ‘여성 이미지’와 ‘진짜 여성’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여성’이라는 단어도
“한 개인의 연령, 계급, 민족성, 성적 지향 등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⁴⁶⁾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여성’을 재현한다는 행위에는 그것이
‘고정관념’이건 ‘대안적 이미지’건 간에 의미는
고정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표지의 의미 작용은
분화된 ‘수신자’의 다양성만큼이나 분열되거나
다의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현재주의에
입각한 해석이 갖는 우월적 평가에도 생각할
거리를 준다. 다음 글을 마지막으로 인용해 본다.

이들 대부분은 ‘좋은 아내’와 ‘좋은
어머니’라는 규범적 역할에 순응하기를
택하고는, 미처 충족되지 않은 교육열을
자녀 세대에 ‘과잉’의 방식으로 실현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교육’과 ‘공부’가 오직

44 허순희, 「헌법 개정안과 여자 지위: 아직도 불어다니는 여자
알보는 대목」, 《샘이깊은물》 9월호, (1987), p.16

45 이종한 외,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2001), p.280

46 Stuart Hall (ed.), *Representation*, (Milton Keynes: Open
Univeristy, 2013), p.342

가정생활을 위한 것으로만 의미화되던 당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을 필연적으로 자신의 다양한 흥미와 관심사, 경력의 ‘단절’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주부들을 성생활이나 화제 위주의 친편일률적인 관심사만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거나, 이들에게 더 다양한 “흥미”를 찾아볼 것을 주문하는 준엄한 충고에는 여성들이(결혼과 출산 외에)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접속(불)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누락돼 있다.⁴⁷⁾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은 오늘의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분명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모든 운동에는 그 나름의 ‘독자적’ 시간이 존재하며, 어떤 운동이든 누구나 포착 가능한 가시적인 것이 되기까지는 반동과 합의 그리고 갈등을 오가는 과도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여러 정황 속에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을 배치할 때, 《샘이깊은물》에 가해지는 “주체적 여성상 재현” 혹은 “또다른 가부장제의 재생산”이라는 양립된 평가 모두 ‘1980년대 여성’이라는 복잡한 텍스트를 오독한다. 그래서 이 연구가 결론으로서 던질 수 있는 유의미한 질문이란,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은 1980년대 여성주의가 잡지라는 종이매체를 통해 발산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이미지가 아니었는가이다.⁴⁸⁾

《샘이깊은물》의 표지 사진은 그 자체가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한계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수정과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변증법의 노선을 제시한게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표지 사진은 흔들리는 것발 아니었을까. 1980년대 한국 여성의 집단 초상이 서늘하게 나부낀다. 44

참고문헌

- 뿌리깊은나무 편집부, (1984.11-1989.12), 《샘이깊은물》, 한창기
- 강운구 외, (2008), 『특집, 한창기!』, 창비
- 오혜진 외, (2020), 『원본 없는 판타지: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 이중한 외, (2001),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 천정환, (2014),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 그라함 클라크, (2006), 『포토그래피: 이미지를 읽는 새로운 방법』, 진동선 옮김, 시공아트
- Stuart Hall (ed.), (2013), *Representation*, 2nd edition,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47 오혜진, 「1980년대 여성독서사와 ‘타자’들의 책 읽기: 할리퀸, 《여성동아》, 『원본 없는 판타지』, (후마니타스, 2020), pp.240-241

48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보다 자세한 내용(표지 사진, 사진 설명, 기사 발체문 등)은 아래 링크에서 열람 가능하다. https://drive.google.com/drive/u/2/folders/1WAvks9K_YfkCzB7pDVoTPxsi_c8HkHAT

- 김석향, 김은하, (1985),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 stereotype 분석」, 『연구논집』 Vol.13, 이화여자대학교
- 김영선, (2018), 「1980년대 여성운동의 새로운 여성 주체 기획과 주부운동론」, 『여성과 역사』 Vol.0 No.28, 한국여성사학회
- 이송희, (1992), 「80년대 한국여성운동」, 『여성연구논집』 Vol.3,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강승연, (2020), 「디자이너 이상철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최재균, (2013), 「월간잡지 《샘이깊은물》에서의 사진 활용에 대한 연구: 표지 사진, 사진화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보스토크 프레스 편집부, (2018.3-4), 《VOSTOK: 사진 속 얼굴》 8호, 보스토크 프레스
- 월간디자인 편집부, (1988), 「특집: 매거진 디자인」, 《월간 디자인》 6월호, 디자인하우스
- 윤옥섭, (1990.9.9), 「여성지 이래도 되나」, 《매일경제》
- (2013), 『2013 서울사진축제: 시대의 초상, 초상의 시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 강운구, (2020.7.24), youlhwadang.co.kr/auth/881
- 창간호 (한창기, 1984.11)(좌)와 《가정조선》 창간호 (조선일보사, 1985.1)
- [그림 2] “그러나 ‘여성지’가 아닙니다”라는 광고 카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고에서도 일반 여성지와 차별화를 꾀했다. 그림은 《동아일보》에 인쇄된 《샘이깊은물》 광고 (1984.11.6)
- [그림 3] 《샘이깊은물》의 다양한 표지 유형(상단 좌-우: 1985.2, 1985.5, 1985.11 / 하단 좌-우: 1986.3, 1987.12, 1989.3): 발행 초기에는 ‘가정’ 혹은 ‘가족’이라는 주제가 포착되고, 모성애를 강조하는 듯한 사진들이 종종 실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회화에서 모티브를 갖고 오기도 했다. 1986년도로 넘어와서야 여성 중심의 잡지 표지 사진 콘셉트가 정착한다.
- [그림 4] 표지사진과 표지사진 설명(1989.8): 표지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잡지 본문에 상자 기사 형식으로 등장한다.

표 차례

- [표 1] 《샘이깊은물》의 주요 정보
- [표 2] 1980년대 《샘이깊은물》에 게재된 ‘여성’ 관련 기사 일부

그림 차례

- [그림 1] ‘가정지’로 등록된 《샘이깊은물》